

세계가 주목한 나주 어린이들의 하모니... 21일 재현한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국제합창제서 청소년 3위 세계 무대 올린 '나주 판타지아'... 금상 수상 쾌거 이뤘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순수한 목소리로 세계 무대에 감동을 선사하며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부산국제합창제에서 청소년 부문 3위와 금상(Gold Diploma)을 수상했다.

부산국제합창제는 국내외 합창단이 참가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 대표로 참가해 섬세한 화음과 풍부한 감성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창설된 이 대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았으며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5개국 56개 팀, 2071명이 참가했다.

그중 해외 12개 팀과 국내 7개 팀이 공연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심사위원단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음악대학의 지젤 와이어스(Giselle Wyers) 교수를 위원장으로 라트비아 작곡가 에리크 에센발츠(Eriks Esenvalds), 인도네시아 지휘자 토미안토 칸디사푸트라(Tomyanto Kandasaputra), 한국의 민인기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등이 참여해 대회의 권위를 높였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 판타지아', '두껍이', '치키 차가 초코 슈' 등 한국 창작 합창곡을 완성도 높게 선보였다.

나주배를 상징하는 금빛 한복을 입은 단원들은 국악기와 어우러진 한국적 연출로 무대를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번 수상은 올해 부산 영화의전당과 베스코 등에서 열린 경연 전체 부문 중 유일하게 국내 팀이 3위 안에 입상



한 사례로 세계 합창인들의 주목받았다.

박의영 예술감독은 "순수 한국 창작곡으로만 구성된 무대로 국제무대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한국 합창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나주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짧은 연습 기간에도 단원 모두가 열정과 팀워크로 멋진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7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부산국제합창제 무대를 시민들에게 재현하며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선사할 예정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시, 특별한 가을밤 감상콘서트 '해설이 있는 음악회'

'뮤지컬×아카펠라 콘서트'로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밤

광양시립도서관이 오는 11월 20일(목) 오후 7시, 금호도서관 음악당에서 특별한 음악 콘서트 「가을밤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의 제목은 '뮤지컬×아카펠라 콘서트'로, 금호도서관이 새롭게 운영 중인 하반기 프로그램과 연계해 책과 원작 콘텐츠 속 뮤지컬 명곡을 아카펠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무대는 국내 대표 혼성 아카펠라 그룹 '나린(NARIN)'이 맡는다. 나린은 국제 아카펠라 대회 3위, 아시안컵 아카펠라 대회 우승 등으로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인정 받았으며, TV와 라디오를 오가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원작 소설에서 뮤지컬로 재탄생한 <레미제라블>, <위키드>, <위대한 쇼맨> 등의 수록곡이 감미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큰 인기를 끈 <K팝 데몬 헌터스>와 금호도서관 하반기 독서토론 강좌 주제 도서인 <진격의 거인>의 수록곡도 함께 공연된다.

작품 해설은 금호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책, 음악, 그림이 있는 예술인문학」을 강의하는 류현주 인문학 강사가 맡아,



관객들이 공연의 흐름과 작품 속 이야기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상적인 화음과 문학작품 속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책과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호도서관 ☎ 061-797-3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KJB금융박물관'이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익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광주은행 본점 2층에 문을 연 'KJB금융박물관'은 호남지역 최초의 금융 전문 박물관으로, 광주은행의 역사와 함께 광주·전남 금융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있다.

박물관은 '역사존'과 '화폐존'으로 구성돼 지역 금융의 발전 과정과 한국 화폐의 변천사, 세계 각국의 화폐를 한눈에 살펴

광주은행 KJB금융박물관, 지역 대표 공익 문화 공간으로 '우뚝'

호남 최초 금융 전문 박물관 '지역 금융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광주은행의 창립 배경과 성장 과정도 함께 전시돼 있다. 전시 외에도 마켓 체험, 화폐 만들기 체험, 은행원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별도로 마련된 금융교육실에서

는 어린이, 청소년,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올바른 경제관념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박물관 운영과 더불어 '사1교 금융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 눈높

이에 맞춘 금융 교육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인식과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주은행 신총시 브랜드전략부장은 "광주은행 KJB금융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금융의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금융을 친근하게 느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순천 창작예술촌 3호 '2025 조강훈 컬렉션 III' 개최

조강훈 작가 대표작과 신작 5점을 포함한 총 20여 점 전시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오는 11월 12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에서 '2025 조강훈 컬렉션III' 전시를 개최한다.

조강훈 화백은 제29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회장으로, 매년 창

작예술촌 3호에서 작가의 대표작과 신작을 선보이는 '조강훈 컬렉션'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올해 세 번째 컬렉션으로 대표작과 신작 5점을 포함한 총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새를 소재로 한 '순천만 비상', '새벽' 등의 작품들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

함에서 앞으로 나아가 첫 발을 내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웅크려진 정열을 표현하고자 준비하며 소리 내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전시 관람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화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psc.or.kr) 또는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070-7784-665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민 기자



책정원서 문학공동체 '공통점' 초대전 열린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23일 동인시집 낭독회도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 작가 초대전'의 마지막 전시로, 문학공동체 공통점의 '작가의 방'을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통점'은 문학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동체 지향의 문학동인으로, 문학을 통해 타인의 삶과 감정에 공감하고, 그로써 '같은 통증(共痛點)'을 나누는 문학적 연대를 실천하는 단체다. 독립문예지 '공통점'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통점 전시는 책정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 작가 초대전'의 마지막 전시로, 여행작가인 권보선·김지숙 작가에 이어 지역 문학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조명하며 초대전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서는 공통점 소속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문학을 매개로 한 예술적 실험과 감성의 교류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달 23일 오후 2시 책정원 3층 모뎀실에서는 '공통점' 동인들이 참여하는 동인시집 낭독회도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 낭독과 함께 문학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공통점의 작품과 활동 소식은 공식 누리집(hcommonpoint.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낭독회 참여자는 동구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지역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 문학인들이 창작 기반을 확장하고, 시민들은 문학을 통해 사유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지역 내로 물 흐르듯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

금이 있습니다

농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농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